

돼지오제스키병 전국 확산 추세

최대 양돈중심지 용인에서 또 발생 중간상인으로부터 돼지구입 금물



▲ 최근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의 양돈장 밀집지역

돼지오제스키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7년 6월 경남 양산군 하북면에서 첫 발생한 돼지오제스키병은 그후 경기 화성과 남양주, 김포에서 잇따라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경기 용인 지역의 2개 농장에서 다시 발생해 이미 이 질병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대 양돈중심지인 용인에서 조차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한데 대해 양돈 농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농장나름대로의 대책마련에 진전궁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이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와 신원리에 소재한 B농장과 J농장의 돼지 5마리, 3마리를 혈청검사한 결과 각각 1마리씩 양성돈으로 판명되었다. 그후 지난 1월 26일 2차로 등록모돈 전두수(B농장 : 98두, J농장 60두)를 혈청검사한 결과 B농장은 100%인 90두 전부, J농장은 81.7%인 49두가 양성돈으로 나타나 농장 전체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발생 농장근처에 있는 소규모 농장에서 새끼돼지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정보를 군 당국에서 입수,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발병이 확인된 것이라고 하니 이 지역의 오염상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지역엔 2백8농가 9만5천두의 돼지가 축사로 뒤덮인 밀집된 상태에서 사육되고 있어 정부의 혈청검사 진행상황에 따라 많은 농장에서 돼지오제스키병 양성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본회에 오제스키병의 증상을 묻는 전화가 오고 있고, 경남, 충남, 경북, 경기의 몇몇 지역에서 오제스키병 증상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도는 것 등을 종합해보면 돼지오제스키병이 의외로 많이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양성돈만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일부 후퇴한 배경으로 예산부족과 양돈농가들의 신고 기피를 들고 있으나, 양돈농가들은 양축가들이 왜 신고를 기피해야만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즉,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가의 80%를 주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은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양축가들은 이 질병이 돼지콜레라 같은 법정전염병임에는 틀림없으나 돼지콜레라와 같이 식가의 80%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돼지콜레라는 백신이라는 예방수단이 있어 언제

라도 백신만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돼지오제스키병은 현재 백신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양돈농가들이 취할 수 있는 확실한 예방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방수단이라야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종돈구입시 주의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 양돈농가들은 이 질병이 분명 최근에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그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이 마땅히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축위생연구소가 밝힌 오제스키병 감염 피해액이 모돈 두당 연간 1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모돈 72만 6천두중 30%가 이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하면 연간 양돈농가의 피해액은 무려 2백 17억 8천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이점을 감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멸의지를 새롭게 해야 한다. 즉, 정부가 박멸의지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긴급오제스키병 방역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대처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양돈농가들도 살처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기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하나의 실수가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감염된 돼지를 중간상인들에게 파는 물염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중간상인에게 판 감염돈은 다시, 다른 지역의 양돈농가에 팔려나가 오제스키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모쪼록 금년은 겨울의 이상난동 등으로 각종 질병이 기승을 부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돼지오제스키병은 봄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오제스키병으로 인한 피해가 모돈 1두당 연간 10만원이라고 하나 이의 예방은 곧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나, 없느냐 하는 매우 절박한 문제다.

따라서 양축가들은 돼지를 구입할때는 중간상인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종돈장에서 구입하고 정기적인 소득과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쥐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구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없이 가까운

가축위생시험소나 시·군·읍·면에 신고해야 하겠다. 정부의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박멸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著 者 ■**

〈취재 : 김 동 성〉

■ 바로잡음 ■

본지 2월호 37쪽에 게재된 기사중 포천에서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했다고 한 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포천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했다고 보도 한 경위는 지난 1월 18일 가축위생연구소에 가검물을 의뢰한 사람이(후에 남양주에서 농장경영하는 것으로 밝혀짐) 주소를 포천으로 허위 기재해 일어난 행정 착오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포천지역의 종돈장 등에 피해를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용인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두 농장에서 돼지 중간상인으로부터 자돈을 구입했다는 내용도 확인결과 근처의 소규모 농가에서 구입, 돼지가 많이 죽은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농장은 2년간 자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알 림 ■

최근 전국 각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돼지오제스키병의 증세와 혈청검사방법, 감염되었을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관계 등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습니다.

본지는 돼지오제스키병이 국내에 발생되기 훨씬 이전인 '81년부터 본지에 돼지오제스키병에 관한 내용을 게재, 정부당국과 양돈농가들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따라서 그동안 본지에 소개한 돼지오제스키병에 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 발간된 월간양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집 필 자	게재연월
최근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돼지가성광견병	한 태 우	81. 12
돼지의 가성광견병	박 응 복	82. 4
가성광견병의 병인증상, 치료·예방	장 경 진	83. 7
돼지의 가성광견병 근절지침	김 병 구	84. 4
충격! 돼지가성광견병 국내 첫 발생	김 동 성	87. 8
돼지가성광견병의 발생과 방역 대책	권 영 방	87. 8
공포의 돼지오제스키병이 양돈인을 괴롭히고 있다	정 관 희	88. 1
기획대담/돼지오제스키병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김 동 성	88. 2
87년도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결과	가축위생연구소	88. 2
오제스키병에 대한 역학적 고찰	안 수 환	88. 4
농림수산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요령 제정·고시	농 립 수 산 부	88. 4
선진제국의 오제스키병과 방역대책	이 오 수	88. 5
돼지오제스키병 남양주군에 집중 발생	김 동 성	89. 12
신춘좌담/돼지오제스키병 박멸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김 동 성	89. 1
정부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고시	농 립 수 산 부	89. 1